

# ‘분단극복史論’ 수립 위한 실증작업

##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펴낸 강만길교수

해방이후 지금까지 계속돼온 ‘분단상황’은 혹자에 의해서는 ‘분단모순’이라는 문제제기까지 불리일으키며 이른바 ‘진보적’ 학계에 ‘분단극복’을 최대의 이슈로 던져주었다.

역사학자로서 이 부담스런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여왔던 강만길교수(58, 고려대 사학과)는 그동안 ‘분단극복사관’ 혹은 ‘민족주의 역사관’이라는, 강교수 자신은 줄곧 “사관이라는 거창한 호명에 부담을 느껴온”, 하나의 당대적 흐름을 형성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값하는 강교수의 일련의 저작들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한국민족운동사론」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을 비롯한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는, 특히 조선후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근·현대사의 해석에 좌우이테올로기적 잣대 대신 그 둘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민족주의’라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평가절하된 ‘史實’들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에 출간된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和平社)도 이 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식민시대의 좌파 수용문제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이 책에서 강교수는 “당시의 좌·우익운동을 분립체제로 이해하려던 기존 남북사학계의 이념편향을 극복하고, 그것을 하나의 통일전선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체계화하려는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일제하 해방운동에 대한 관심은 상해임시정부활동과 1920년대 초기 만주지방에서의 무장운동, 그리고 1930년대까지의 국

내운동으로서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과 식민시대 말기의 광복군활동에 국한된 것이었다. 반면 당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운동은 전체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자리잡지 못한 채 “관점 자체의 한계와 체제적 연구환경적 제약성 때문에”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30년대 후반 이후 ‘조선민족혁명당’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족해방통일전선의 이론적 맥락과 그 구체적 활동을 세세히 추적하고 있는 강교수의 이번 저서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에서의 분단극복의 한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뜻깊다.

1935년 중국 南京에서 대일전선통일동맹을 근간으로 창단된 조선민족혁명당은 당시의 주도적 흐름이던 통일전선운동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정세분석을 통해 정치하게 노선 이론을 체계화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김구 중심의 ‘임정고수파’를 제외한 중국본토지역의 민족운동전선의 중요 인물들이 총망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노선상의 차이로 내분을 겪기도 하지만 꾸준한 통일전선 노력으로 1937년에 이르러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등의 우파연합세력인 한국광복운동단체협의회와 민족혁명당 중심의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좌우통일전선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44년 민족혁명당이 임시의정원에 참가해 통일전선내각을 이룬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이후에도 민족혁명당은 좌우통일전선 유지에 애쓰다가 해방을 맞아 무산되고, 1948년 남북협상 참가를 마지막으로 해체된다.

30년대 후반 이후 민족해방통일전선의 이론적 맥락과 그 구체적 활동을 세세히 추적하고 있는 이 책에서 강교수는, 이념적 노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좌파를 대표하지만 이들의 통일전선의 궁극적 성격은 계급노선이 아닌 민족노선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만길교수.

1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활동했던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자신의 분단극복사론을 뒷받침해줄 史料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강교수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이라는 본래 창당목적에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은 30년대 후반 이후 해방운동의 특성을 가장 잘 집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 오면서 우리역사학의 어느 한부분에서라도 ‘분단극복사론’을 수립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작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졌왔고 이 책은 그 작업의 식민지시대 부분

을 체계화하겠다는 욕심에서 씌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강교수는 그러나 역사학에서의 실증주의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역사의 주된 임무는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이라는 E.H. 카의 진보사관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후학들에게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는 낡은 내용이 돼버린” 「한국근·현대사」 개정판을 준비중인 강교수는 한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비평지 「사회평론」 창간호 작업으로 분주하기만 하다.

— 정소연 기자

### 2탄, 드디어 출간!



농부(마이아)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 절프전쟁, 이라크전쟁! 우주여인 <셈야제>가 이미 15년전에 예언했습니다.

플레이아데스성단에서 환상의 UFO를 타고 온 우주여인 <셈야제>가 이미 15년전에 농부(마이아)에게 페르시아만 전쟁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석유파동, 정치가 희생, 항공기사고, 에이즈, 제3차 세계대전 등을 예언했던 내용들이 놀랍게도 속속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I)편, (II)편

우주여인 <셈야제>와 농부(마이아) 이야기  
오다까 요시아역음/정우인 옮김/값 3,800원  
● MBC-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아)와 우주여인 <셈야제> 이야기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아)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 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 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NASA 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UFO연구가 스티븐스의 우주여인 <셈야제> 이야기  
웬델 C. 스티븐스/현선아 옮김/값 3,800원  
● 2편주요내용 ● 북극권상의 기묘한 비행물체 ● 외딴의 남자가 찍은 UFO 사진 ● 완벽한 독일어로 말하는 우주여인 셈야제 ● 플레이아데스인의 언어혼련법 ● 순수한 사고가 유일한 길 ● 방호용 오존층이 나날이 파괴되고 있다 ● 플레이아데스 문명은 지구보다 3천년 앞서 있다 ● 셈야제 쓰러지다 ● 플레이아데스인의 문화와 생활 ● 우주인의 과학 메시지와 현대과학  
—선명한 UFO 칼라사진 수록(국내최초공개)—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도서주문 전명서적: (02)272-5871  
을지서적: (02)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02)454-7466  
FAX: (02)455-9037